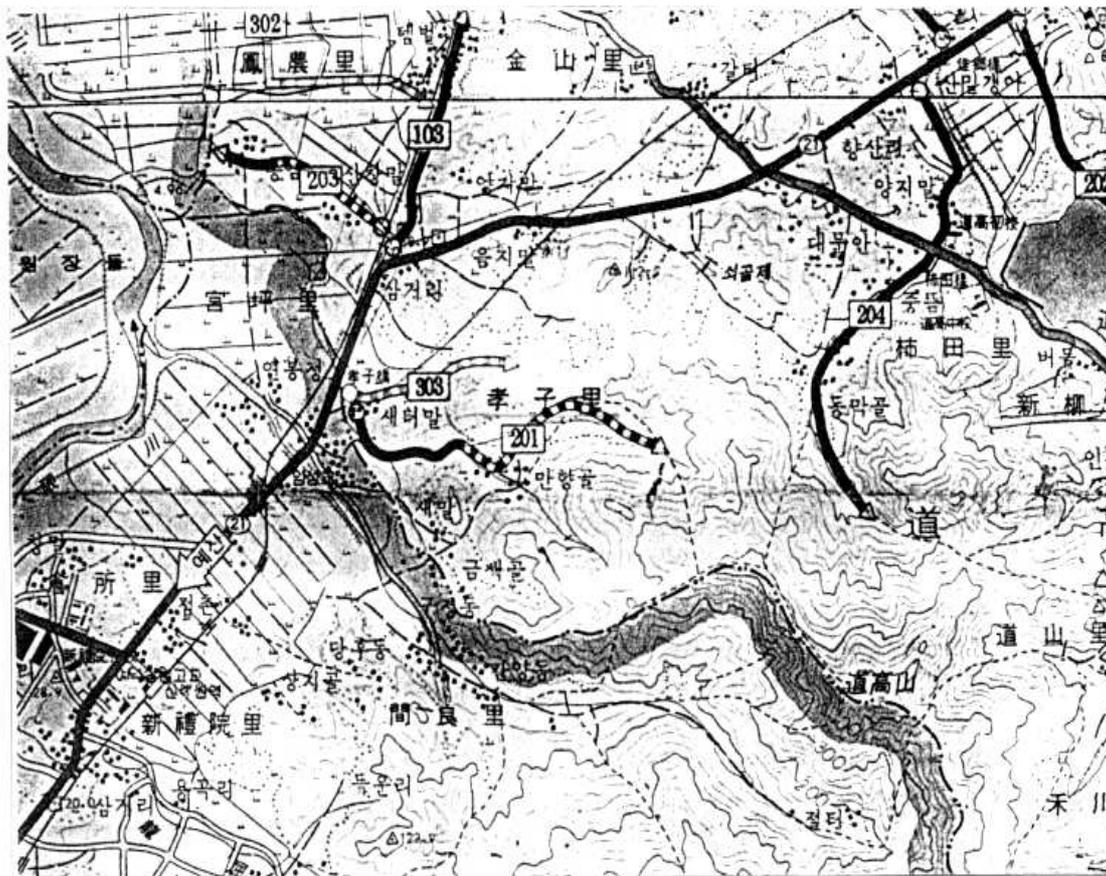


* 마을사 *

효자리·孝子里

도고면의 한 마을로 효자리는 연봉정, 금새골, 만향골, 서반쟁이로 이루어졌고, 본래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효자가 났으므로 효자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사리(대소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효자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인구는 총 200명으로 호구수는 72호에 이르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효자리 위치도>



☒ 연봉정(대소정) 마을(효자리)

효자리 마을은 연봉정, 금새골, 만향골이 있으며, 연봉정은 효자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연화부수형이 있고, 또 예전에 친영맞이를 이곳에서 했다고 하며, 금새골은 일제는 금을 캐기 위해 금광을 팠으나 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이 섰다"하고 했고 그 말이 변해 금새골이 되었고, 만향골은 우리말 표현중 "마냥 ~하다"란 말이 붙어 만향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또는 옛날에 만향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다 하여 만향골이라 불리게 되었고, 서반쟁이는 연봉정 마을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사당시 효자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이 마을은 위도 36-43-50, 경도 126-52-20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산시내에서 약 16km 떨어져 있을 정도로 아산시 외곽에 위치한 효자리는 예산군과 맞닿아 있고, 예산으로 가는 4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왼쪽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 왼쪽이 효자리이다.

2) 현황

연봉정마을은 남자 105명, 여자 95명으로 총 200명으로 호구수는 72호에 이른다. 주민들의 9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축산업에 종사한다.

- 인구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연봉정 마을	200명	105명	95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연봉정 마을	100%	95%	5%

연봉정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16ha, 밭 37.7ha로 논보다 밭이 훨씬 많고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등이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앰프가 구비된 마을 회관이 1개소 있고 농약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연봉정 마을	53.7ha	16ha	37.7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연봉정 마을	1개소	1개소	1개소

연봉정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박씨가 35%로 가장 많고 김씨 17%로 기타 성씨가 48%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층은 30대~5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박씨	김씨	최씨	윤씨	이씨	기타
연봉정 마을	72호	25호	12호	2호	2호	4호	27호

- 최고령자

연봉정 마을의 최고령자는 안월출씨로 83세이다.

3) 자연경관

마을이 예산과 도고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산이 높고, 물이 맑은 지역이며, 연봉정을 뺀 금새골, 안양골, 떼장거리 동네가 도고산에 감싸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도고산 꼭대기에는 탑봉이 있는데 이는 예전에 이곳에 봉화대가 설치 되었을 때 봉화를 위해 둥그렇게 쌓았다고 한다. 이 봉화는 신창 초등학교 뒤의 봉화와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4) 마을변천과정

효자리는 본래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효자가 났으므로 효자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금사리(대소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효자리라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효자리에는 가장 많이 사는 성씨는 박씨로 25세대가 살고 있으며, 지금 7대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기 1750년경 약 25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6) 지 명

- 연봉정(대소정) : 효자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연화부수형이 있다하며, 또 예전에 예산원의 친영맛이를 이곳에서 하였으며, 아산군과 예산말로 갈라짐.
- 금새골 : 연봉정 동쪽에 있는 마을. 이곳에서 최효자가 났다함.
- 만향골 : 금새골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만향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만향골이라 함.
- 백미논 : 도고산에 둘러싸인 논으로 쌀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함.
- 갈티고개 : 금새골 동쪽에 있는 고개. 전에는 큰 길이 이곳으로 나서 신창읍에서 예산으로 통하였음.
- 떼장거리 : 갈티고개의 다른 이름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적 조건으로 떼가 많이 자란다하여 떼장거리라 함.
- 서반챙이 : 연봉정 마을 동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연꽃을 안은 소반(늪 언저리를 말한다.) 같은 곳에 있으므로 소반챙이라 함.

- 연화봉 : 연봉정 뒤에 있는 산. 연꽃 모양이라 함.
- 갈티골 : 장뚝 위 동쪽에 있는 들. 갈티 고개 아래가 됨.
- 성뚝들 : 연봉정 앞 철로 너머에 있는들.
- 장뚝 : 연봉정 앞에 있는 들. 긴 뚝이 있음.
- 군계교 : 영봉정 앞에 있는 다리. 아산과 예산 군계가 되는데 1929년에 놓았음

7) 전 설

十 금새골 마을의 유래

일제시대 당시 금새골 지역에서 일제는 금을 캐기 위해 금광을 팠다고 한다. 그러나 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이 섰다"하고 했고, 그 말이 변해 금새골이 되었던 것이다. 금새골을 금곡 또는 금골로도 불린다.

十 만향골 마을의 유래

예전에 만향골에 살던 사람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한 것 같다. 모를 심어도 마냥 여유가 있고, 어떤일을 하여도 마냥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우리말 표현 중 "마냥 ~하다"란 말이 붙어 만향골이 되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十 효자리에 얽힌 전설

이조 말엽 이곳에 최의대라는 어린이가 마냥골에서 노모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어 최의대는 노모의 병 구완을 위해 각 방면으로 약을 구하여 드렸으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던 중 하루는 병석에 누우신 노모께서 "잉어를 먹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므로 어떻게 하든 잉어를 구하여 봉양코져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끙끙 얼어 붙은 연못을 며칠동안 찾아 다니며, 연못을 깨고 잉어를 잡으려 하였으나 잉어는 잡히지 않고 또 구할 길도 없었다. 나이 어린 의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낮에는 연못을 찾아다니며 잉어를 찾았고 밤이면 뒷뜰에 나가 하늘에 어머니의 병환을 하루 빨리 완쾌하게 하여 주시고 잉어가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기도 드리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날 기도를 드리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의대야 너의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도다. 너의 어머니 병환은 곧 나으실 것이다. 걱정 하지 말아라. 네가 찾고 있는 잉어는 집 앞 연못에 있으니 잡아서 어머니께 복용토록 하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다. 꿈에서 깨어나 연못에 달려가 보니 과연 잉어가 있는지라 그 잉어를 잡아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의 병환이 깨끗이 나았다 하여 이로부터 효자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十 박창신의 효에 대한 일화

이씨 조선 선조때의 선비요 효자로 이름 높은 박 창신의 이야기다. 박씨는 깊은 생각을 하며 지금의 신창을 지나 도고로 가는 무악재 고개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무악재에 다 올랐을 때 일이었다.

"아! 오늘도 와 있구나." 하고 감탄을 했다. 어제의 그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어제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소를 찾아 가느라고 이 무악재를 넘고 있었다. 그 때 어두운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다. "앗! 호랑이 닷!" 박씨는 너무 놀라 자빠질 뻔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며, "나는 지금 아버님 산소로 가는 길이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러느냐?"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슬슬 다가오며 등을 타라고 시늉을 했다. "나보고 타라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타보자." 박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탔다. 박씨를 태운 호랑이는 쏜살같이 숲속을 달렸다. "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 먹으려는 것은 아니겠지..." 박씨는 그런 생각까지 하며 호랑이에게 몸을 맡긴채 참고 있는데 호랑이가 발을 멈추었다. 박씨는 가만히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 보았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거기는 바로 박씨 아버지의 산소앞이었다. 박씨는 하도 신기하여,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데려다 주는 거냐?" 하고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박씨는 아버지의 무덤앞에 두 번 절하고 오늘의 일을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호랑이는 그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다시 타라는 시늉을 했다. "그래 고맙다" 그렇게 해서 다시 호랑이를 탄 박씨는 무악재에서 내렸다. 그런 다음에 호랑이는 기쁜 듯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하여 박씨는 몇 해 동안 호랑이를 타고 산소에 다녔다. 이 소문이 서울까지 좌악 퍼졌다.

" 박씨의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 하늘까지 알아 주는 구료." 세월이 많이 흘러 박씨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는 충남 아산군 도고면 효자리에 묻혔다.

" 어머니. 이게 뭐야! 큰 호랑이가 무덤 앞에서 죽었네!" 박씨의 무덤을 찾아온 가족들이 소리 지르며 무덤 가까이로 가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 생긴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다.
"이 호랑이도 나이가 많아 죽었군"

박씨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호랑이의 죽음을 가엾게 생각했다.

" 이 호랑이도 아버님 곁에 묻어 줘야지" 아들은 일생동안 아버지에게 충실했던 호랑이를 위로해 주고 무덤옆에 묻어 주었다. 이 이야기는 금방 대궐의 임금 귀에 들어갔다.

" 허 참, 효성스러운 사람이구나. 호랑이도 그 뜻을... 아니 참 영특하기도 해라!" 임금님은 이렇게 칭찬하며 박씨의 묘앞에 사당을 짓고 " 효자비"를 세우고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효자리 마을의 특별한 전통놀이는 없지만 초상시 장년회에서 협력하여 도와주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이 마을에는 우국지사 임화철의 묘가 있다.

十 임화철(고종 27년 1890~1941) : 호는 도곡, 별명은 천근, 본관은 부안, 명종초의 충신 강원도 관찰사 역령의 12세손이다. 고종 27년 (1890) 6월 7일 공주군 이천면 대동리에서 탄생하여 빈곤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 향리의 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하다 고종 36년 (1899년) 아산군 선장면 군덕리로 이사하였다. 그는 천품이 청백강직하고 총명하였으며 애국정신이 투철하여 1910년 한일합방이 된 후에는 나라잃은 설움을 한탄하고 한일투쟁에 쇠신할 것을 결심, 동지들을 규합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전국각지에서 독립시위운동이 전개되자 되자, 이에 호응하여 정규희, 서몽조, 오상근, 김천봉등과 모의하고 동년 4월 4일 아산군 선장면 군덕리소재 선장시일을 택하여 200여명의 군중에게 독립운동을 선동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였으며 주동한 동지들과 같이 곤봉을 휘두르며, 군중을 지휘 선장면 헌병주재소에 쇄도하여 투석하고 구내에 침입, 유리창등을 파괴하였다. 주모한 동지들과 같이 일헌병에 체포되어 잔인무도한 고문과 치욕속에 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시다 공주형무소로 이감 되었으며 동년 5월 1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및 소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심을 제기하였으나 동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쓰라린 옥고에 시달려 신병으로 고생하다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였다. 그후 의경의 간악한 감시로 인하여 구국의 웅지를 펴보지도 못하고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1961년 4월 20일 향년 72세를 일기로 한많은 형극의 생을 마쳤다. 정부에서는 1980년 8월 14일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묘소는 아산군 도고면 효자리 산 18번지에 있다. <독립지사임화철지묘비명>

十 최익대(崔翼大: 이조) : 자는 한경, 호는 송암, 본관은 전주, 평도공 유경의 후예, 삼봉 惠榮의 아들이다. 천성이 至孝하고 덕행이 었다. 모친의 病患에 壇을 設置하고 하늘에 祈禱하여 자신이 대신하여 병을 알게 해 달라고 원하였으며, 손가락을 물어 뜯어 피를 흘려 넣어 回甦시켰다. 오리고기를 먹기 원하였는데 감자기 새매 한 마리가 오리를 물어다가 땅에 떨어뜨리거늘, 이것을 供進하여 效驗을 얻었다. 향리와 도에서 推薦하여 관부에서 상금과 상장을 내리니 그가 살고 있는 馬郎洞을 孝子理라고 이름을 고쳤다.<朝鮮纂輿勝覽>

10) 종교현황

마을에 특별한 종교 단체는 없다.

11) 공장현황

효자리에는 효림기계공업(주)회사가 있으며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다.

力 효림기계공업(주): 효자 174-2 건축용강화 플라스틱 96. 5. 11. 종원수 9명

12) 마을현황

연봉정 마을은 예부터 효자가 많던 마을로 예산과 도고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였고 산이

농고 물이 맑은 지역이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1997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마을에는 우국지사 임화철의 묘가 있고 마을에는 큰 정자나무가 있다.